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아이돌 그룹 긴장해" '4대 천왕' 돌아온다

비, 세븐, 이효리, 보아 등 올해 가요계에 '솔로 4인방'이 복귀한다.

네티즌은 2000년대 대표 가수들로 꼽히는 이들을 '4대 천왕'이라고 부르며 반기고 있다.

비와 이효리는 2008년 음반을 낸 이후 각각 1년 반, 1년8개월 만이며, 미국 활동에 매진한 세븐과 보아는 각각 3년 반, 5년 만의 복귀다.

지난해 가요계가 '걸그룹'의 강세 속에 데뷔 1~3년차 된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터라 이들의 등장이 가요계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첫 주자는 이달 말 4집 발매를 목표로 한 이효리로 현재 음반 녹음이 마무리 단계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이효리만의 음악을 선보이려고 기존 유명 작곡가 대신 해외 및 신인 작곡가들로부터 곡을 받았고, 리쌍의 개리, 애프터스쿨의 베카, 포미닛의 전지윤을 피처링 참여시켰다. 이미 지난해 말 미국에서 뮤직비디오와 재킷 촬영도 마쳤다.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전작보다 힙합 사운드가 강해졌다"며 "수록곡 전곡이 타이틀로 느껴질 정도로 탄탄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비가 4월 말 4~5곡이 수록된 미니음반 형식의 스페셜 음반을 발표한다. 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첫 주연영화 '닌자 어쌔신'을 개봉했고, 후배 그룹 엠블랙을 데뷔시키느라 자신의 음반 활동은 하지 못했다.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일부 곡의 녹음은 마무리됐으나 작곡가들로부터 더 좋은 곡을 계속 받고 있다"며 "10월에는 정규 음반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창 녹음 중인 세븐은 새 음반 발매 일정을 상반기로만 잡아뒀다. YG엔터테인먼트 작곡가들로부터 곡을 받아 녹음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랜만의 복귀인 만큼 만족할 만한 노래가 나올 때까지 녹음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보아는 1집 발매일인 8월25일 정규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5년 5집 '걸스 온 톱(Girls On Top)'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음반을 낸 터라 복귀 음반에 어떤 스타일의 곡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는 게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가요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연초에도 소녀시대, 카라, 씨엔블루, 티아라 등 아이돌 그룹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솔로가수들이 새로운 음악 흐름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솔로 가수는 실패한다는 지금의 음악 시장에서 이들이 아이돌 그룹의 흐름에 제동을 걸지, 그 흐름에 묻힐지 궁금하다"며 "10대가 주축이 된 가요계에서 연륜과 실력있는 솔로들이 다시 성공 모델이 된다면 아이돌 그룹 제작에만 열을 올리는 시장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올해는 지난달 강타가 제대한 데 이어 5월부터 10월 사이 이루, 이기찬, 성시경, 에릭 등이 차례로 군 복무를 마쳐 이들의 복귀도 주목된다.

이루와 성시경의 소속사 관계자는 "제대 후 음반 준비를 해 연내 복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드렁큰타이거·윤미래·리쌍

일본에서 합동공연

드렁큰 타이거, 윤미래(t), 힙합듀오 리쌍이 일본에서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정글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이들은 26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 스텔라볼에서 '크레이지 나이트(Crazy Night)'라는 파티 형식의 공연을 개최하며 소속사 후배인 래퍼 비지와 보컬 정인도 참여한다.

소속사 맏형인 드렁큰 타이거는 지난해 6월 8집을 발표해 10만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고, 리쌍도 6집 타이틀곡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윤미래도 상반기 정규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호정〉

〈손현주〉

운명의 장난처럼 이웃사촌 된 이혼부부

SBS '이웃집 웬수' 13일 첫 선

아픈 기억을 안고 이혼했다.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었다. 그런데 둘은 운명의 장난처럼 이웃사촌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

'천만번 사랑해' 후속으로 13일 오후 8시50분에 첫선을 보이는 SBS TV 새 주말극 '이웃집 웬수'(극본 최현경, 연출 조남국)의 이야기다.

최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이웃집 웬수'의 제작발표회에서 김영섭 SBS 책임프로듀서(CP)는 "곱씹어봐야 그 참맛이 느껴지는 드라마다. 대사 하나, 감정 하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라 연기자들도 어려워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작품"이라고 자신했다.

남자 주인공 성재 역의 손현주는 "이번에도 여복이 많다. 예쁜 유호정 씨, 김성령 씨와 같이 연기하게 됐다"며 "올해도 착하고 건강한 드라마로 끝까지 가겠다고 맹세하겠다. 저희만 즐기고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덜 웃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인공 윤지영 역의 유호정은 "성재와 이혼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조금은 억척스러운 여자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여자"라고 말했다.

성재와 지영은 티격태격하며 살다가 명절에 아들을 잃은 뒤 결국 이혼하게 된다. 갈라선 뒤 둘은 각기 미진과 건희를 만나게된다.

미진 역의 김성령은 "성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여자로, 성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돈도 성재보다 많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한 굉장히 멋진 여자"라며 웃었다.

부잣집 아들이자 이탈리아 레스토랑 셰프 역의 장건희는 신성록이 맡았다. 그는 "한마디로 도도한 남자, 나쁜 남자"라며 "이번 작품은 아주 감이 좋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김미숙, 홍요섭, 반효정, 이혜숙 등이 출연한다. 김미숙은 평생에 한 번 맞선 본 남자를 잊지 못해 30년을 노처녀로 산 채영실 역을 맡았다. 그는 "직장생활을 오래하면서 동생 셋을 뒷바라지한 긍정적인 여성인데, 마음속에 품고 살던 맞선남을 30년 만에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